

# 화순 백신·바이오 내년예산 대거 반영

### 정부예산안 11개 사업 478억원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1억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청신호



화순백신산업특구 전경.

화순군이 추진하는 백신·바이오·첨단의료 분야 사업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5건을 포함해 총 33건 649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백신·바이오·첨단의료 분야는 11건 478억원이 반영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사업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 158억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56억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 57억원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30억원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 24억원 ▲치료백신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 21억원 ▲펩타이드 개발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 10억원 등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21억원이 반영돼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12억원,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억원, 사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11억원 등 농촌지역 개발과 생활SOC 확충 사업도 상당수 반영됐다.

한편 화순군은 738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의 의

회를 통과할 경우 총예산 규모는 8362억원으로 늘어난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화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백신, 바이오, 첨단의료, 재해·농촌개발 분야 사업 등이 대거 반영됐다"며 "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권익위 내달 20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를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등 6개 협업기관이 참여해 근로개선,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地籍)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0월5일 까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예약이 어려운 경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함평 군민뿐 아니라 장성군, 광주 광산구 등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결될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역 요양·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민선 8기 공약 '향촌복지' 본격화

### 어르신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1대 1 돌봄 지킴이단도 운영

담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향촌(鄕村) 복지' 정책을 본격화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어르신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 건강·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향촌 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어르신들이 광주 등 도시에 있는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을 전전하기보다는 군내에서 머물며 자녀·지인·공동체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향촌 복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과 보건지소 신설 등 보건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어르신 지킴이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어르신 지킴이단은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를 1대 1로 연결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고독사 예방, 재난재해 정보 전달 등의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 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소방서(119)와 실시간으로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955대를 연내에 보급할 방침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장흥중·장흥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 전남도교육청 개편안 최종 승인

장흥교육의 숙원과제인 장흥중학교와 장흥여중학교의 남녀공학체제로의 전환이 해결됐다.

장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7월 19일 행정 예고한 장흥중과 장흥여중의 남녀공학 체제 개편(안)을 지난 8일자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자로 장흥중은 특수 1개 학급을 포함 10개 학급, 장흥여중은 장흥향원중으로 교명을 변경해 9개 학급 남녀공학체제로 전환된다.

장흥읍 내 모든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인데도 이들 중학교만 단성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10여 년 전부터 남녀공학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남녀공학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이러한 요구는 탄력을 받게 됐으며 관할 2개 초등

학교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설명회와 찬반투표(65% 찬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이후 장흥여중 교명변경(장흥향원중), 장흥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안)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도 교육청이 최종승인이 이뤄졌다.

앞으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개정(10월)과 남녀 구분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내년 2월) 과정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성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흥중과 장흥여중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면학 풍토조성과 학교 이미지 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46년 개교한 장흥중은 11개 학급에 학생 수는 260명이며, 1966년 문을 연 장흥여중(장흥향원중)은 8개 학급에 191명의 학생 수로 운영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시립예술단 20~21일 시민음악회

### 영산포 철도공원·빛가람 호수공원

나주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시민음악회를 오는 20~21일 양일 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육성하는 문화관광'의 첫 걸음이 될 이번 음악회는 20일 영산포 철도공원(영강동), 21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95분) 각각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신명나는 합창, 국악 무대로 꾸며진다.

합창단은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단발머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모나리자' 등 가수 조용필의 명곡 메들리와 시민에게 친숙한 대중가요 등을 안무와 결합해 선보인다.

국악단도 '화선무', '봉황들노래', '설장구협주곡 오빛세이', '대중가요 남', '뽕굿과 소고춤' 등 가(歌)·무(舞)·악(樂)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무대의 흥을 돋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예술단 공연이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나주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시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숲에서 즐기는 가을...나주숲체원, 숲 캠프

### 10월 1일~3일...23일까지 신청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 국립 나주 숲체원이 가을철 산림복지 힐링 구간을 맞아 산림문화 특색화 캠프인 '꿈지락 숲'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녹차를 이용한 차 블렌딩(혼합)과 가을의 노란빛을 담은 치자 천연염색, 목공 체험과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하다.

숲체원에서 숙박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1박 2일 형과 2박 3일 형으로 구성됐으며 10월 1일부터 3일까지다.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난 2020년 나주 금성산 일원 58ha에 문을 연 국립 나주 숲체원은 목공 등 다양한 체험센터·대강당·습지원·숲속의 집·치유숲길 등 체험·숙박시설을 갖췄으며 사업비 200여억원이 투입됐다.

황인옥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차 블렌딩과 천연염색, 공방 체험 등 나주 숲체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가득한 이번 캠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산림문화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